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2020. 5. Vol. 300



양양 농꾼들의 밥, 'жат놀이'

양양군, 전 군민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65억 4천만원 지급



전례 없는 어려움에 전례 없는 결단!
군민 1인당 20만원, 소상공인 40만원 지원

양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
5월~6월 중 지급... 2020. 12. 31까지 양양에서만 사용
선불카드 지급... 지역경제 심각상황에 긴급 수혈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 생계지원금과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아본다.



양양군 긴급재난생계지원금

- ❶ 지원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
- 2020년 4월 23일 현재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
- ❷ 지원내용 : 주민 1인당 20만원
- 1인당 2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 지급(1회 한정)
- 양양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 2020. 12. 31까지
- ❸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 세대원 중 성인 누구나 일괄신청 가능
- ❹ 신청 및 지급 : 5월 ~ 6월중



양양군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 ❶ 지원대상 :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 이하
- 사업장 및 대표자 주민등록 모두 양양군으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
※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
(연매출 1억 미만)는 지원 제외

· 소상공인 현황 : 3,280업체(종사자 6,102명)
(숙박 및 음식점 1,537, 도매 및 소매업 744, 제조업 170, 기타 829)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군민들이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❷ 지원내용 : 업체당 40만원
- 1인당 4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 지급(1회 한정)
- 지원대상여부(연매출액, 소상공인 여부 등),
강원도 소상공인 중복 지급 여부 확인 후 결정
-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 2020. 5. 15 까지
- ❸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및 군청 경제에너지과에 신청서 제출
- ❹ 신청 및 지급 : 5월 ~ 6월중



희망양양

- 04 기획특집_ 양양서핑, 스포츠를 넘어 문화를 만들다
- 06 ISSUE & PEOPLE_ 서피비치 박준규
- 09 발걸음 촌촌, 마을 가는길_ 두창시변리
- 12 맛있는 양양여행_ 만석을 꿈꾸던 양양 농꾼들의 밥, '잣놀이'

의기양양

- 14 YANGYANG NEWS
- 17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 18 불길 속, 이웃주민 구한 외국인 노동자 '알리'
- 20 의정소식_ 제2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 22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양양읍성

열린양양

- 24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COVER STORY



양양 농꾼들의 밥, '잣놀이'
(사진 : 강원도 외식지널 대표 황영철)



양양소식 · 300호

| 발행일 2020년 5월 4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ssugi0129@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양양 서핑, 스포츠를 넘어 문화를 만든다.



주민 어른과 서핑을 마치고 나온 서퍼

2007년 겨울, 우연히 떠난 발리에서 처음으로 파도타기를 한 후 서핑에 매료된 나는 시간이 지나 지금은 양양군 인구리에 거주하며 파도타기를 업으로 살아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을 오가던 교포들과 외국인들이 서핑을 하곤 했는데, 2008년 필리핀 유학생들이 동호회를 만들면서 활성화되었다. 당시 현북면 기사문리에 위치한 38휴게소 지하 공간을 임대해 서프 클럽이 운영되었고, 이듬해인 2009년, 현남면 동산리 해변에 서프스쿨이 오픈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해를 거듭하며 더욱 많은 서퍼들이 양양 해변을 찾았고, 해변 마을에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 진정성으로 이해하다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양양의 해변 문화는 큰 변화를 거듭해왔다.

여름 피서철에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 튜브와 수박을 들고 찾았던 해변이, 이제는 계절과 상관없이 한겨울에도 검은색 웨트슈트를 입고 서프보드를 옆에 걸친 서퍼들로 붐빈다. 한적했던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즐기는 자유를 노래하는 음악들이 쏟아지고, 도로 양 옆으로 길게 늘어선 건물에는 힙한 가게들이 생겨났다. 점점 변화하고 있는 양양의 작은 바다 마을에는 주민과 서퍼들이 공존하며

만들어낸 특별하고 이색적인 콘텐츠로 가득하다. 무엇보다 서핑 문화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주민과 서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에 지역 주민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조용하던 마을에, 햇볕에 그을려 탈색된 무겁고 치렁거리는 긴 머리에 짧은 반바지만 입고 돌아다니는 외지 청년들은 확연히 대비되는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서핑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해변마을 주민들은 한겨울에도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이 낯설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큰소리로 인사를 해도 좀처럼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이웃집의 무거운 짐을 옮길 때 돕는다거나, 해변 쓰레기를 줍는 모습 등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 주민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 자연스레 얼굴을 익히게 되니 소리 없는 묵례로 답해주기 시작했다.

파도타기는 스포츠가 아닌 문화다.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문화 구성원 모두가 단일 공동체임을 인지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다가서야 한다. 주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경계하고 불만을 토로하기에 앞서 먼 곳에서 방문한 객들을 이해와 배려로 감싸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방문객 또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난 해방감에 도취되기 전에 오랜 시간 해변을 지켜온 주민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그들의 공간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국내에서 서핑이 처음 시작되었던 제주를 비롯해 부산, 포항, 등을 비롯해 강원 동해안의 고성 양양 강릉 동해 삼척지역마다 서프스쿨이 생겨나고 있고, 각 도시들은 무한자원인 서핑을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심지어 바다 없는 경기도 시흥시는 2020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을 건설 중이다. 현재 서핑 마켓은 상승 곡선을 타며 초입 단계를 지나고 있으며 앞으로 서핑은 해양관광자원으로서도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파도타기에 빠져있다.

양양 해변은 지난 10년 동안 좋은 파도가 생기는 바다 환경에 끌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서퍼들로 가득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매력적인 곳으로 변모했다. 해양관광레포츠로서 서핑이 인기를 모으면서 양양은 서핑을 즐기기에 최적의 파도를 갖춘 환상적인 바다 놀이터임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게다가 서퍼와 지역주민들의 하모니로 자생적인 서프 인프라가 생겨나고, 양양군의 전폭적인 지지로 차별화된 서핑 콘텐츠 개발과 브랜딩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서핑이 서퍼들의 레저 활동을 넘어서 좀 더 전문적인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핑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해변 문화가 해수욕이나 관광대상지였는데 서핑 등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구성, 안전 문제 등도 해결해야 과제들이다.

(글·사진 WSEFARM 한동훈)

양양에서 만난 보라카이 해변 동해안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서피비치 박준규 대표



언제부턴가 SNS에 동남아 어느 해변 같은 이국적인 느낌의 사진과 함께 '양양'이라는 해시태크가 달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봐도 외국해변 같지만 한데 양양이다. 강원도 페이스북 팔로워들이 뽑은 도내 여행지 1위로 선정되는가 하면, 지난해 70만 명의 인파가 다녀간 국내 최초 서핑 전용해변 '서피비치'다. 양양에서 이런 바다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새로운 도전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서피비치 박준규 대표는 오늘도 즐거운 상상을 양양에 펼쳐놓는다.



양양보라카이, 상상하는 대로 이루다

하조대 위쪽 마을 중광정리에 서핑 전용 해변 '서피비치'가 있다.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다면 스쳐 지나갈 법한 곳이다. 모래사장 군데군데 야자 나뭇잎이 드리워진 파라솔, 해먹과 빈백(beanbag)에서 한가로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풍경이 이국적이다. 외국 휴양지에 와 있는 것 같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박준규 대표는 더 여유로워 보인다. 바닷바람에 흠날려 정돈되지 않은 머리에 일부러 기른 것 같지 않은 덩수룩한 수염이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인다.

“해운대에서 스마트 비치 사업을 하다가 2011년 강원도 동해안에 들렀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학창시절을 보낸 강원도는 20년 전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강원도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핫한 바다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동남아 휴양지 중에서 저렴하면서도 인기가 많은 필리핀의 보라카이 같은 해변을 구상하다가 양양에 지금의 ‘서피비치’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 양양보라카이 사업 구상을 시작해 2015년 7월 국내 최초 서핑 전용 해변 서피비치의 문을 열었다. 이색적인 구성을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 지 의문이었다. 처음엔 반응이 싸늘했다.

문을 열고 1~2년 차는 서핑 전용 해변, 3~4년 차엔 이국적인 프라이빗 비치, 5~6년 차엔 서프 올데이, 파티 올나이트 콘셉트로 2년에 한 번 씩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서피비치는 여름 한철 열리는 해수욕장이 아닌 서핑, 캠핑, 공연, 파티, 클럽라운지 바 등 일 년 내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양양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지금은 SNS에 20만 개의 서피비치가 검색될 정도로 청년들의 성지로 사랑받고 있다.

철조망과 갈등을 걷어내고, 새로운 바다를 열다



박준규 대표는 사업 구상을 하면서 몇 가지 기준을 두고 강원도 동해안의 후보지를 찾아 나섰다. 일자형 해변일 것, 밤에 파티를 여니까 주변에 민가가 없을 것, 주민들과의 갈등 요소가 발생하지 않게 상인협회나 어촌계가 없는 지역일 것,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니 중광정리 인근 해변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군사지역이라서 넘어야 할 장벽이 높았다.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군청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쫓아다녔죠. 허가 서류만 해도 20여 종류에다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많았어요. 하지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군사지역으로 묶여 철조망에 둘러싸여 있던 바다의 빗장이 2015년 드디어 열렸다. 민간인에게 46년 만에 처음 개방되는 순간이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주민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을까 늘 신경 쓰고 노력한 결과다. 1년에 한두 번씩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주민과 어울려 다니고, 마을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여했다. 그리고 매년 3천만 원의 기부금도 내고 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하면 빌려서라도 매년 마을에 기부를 하고 있어요. 서피비치는 서프 스킨, 공연, 캠핑장 운영 등으로 수익을 얻는 일을 하지만 바다를 청소하고, 마을에 기부하는 것까지가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바다를 지켜온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심이 통했을까. 이제는 주민들이 앞장서서 서피비치를 지지하고 응원해 준다. 지난해 클럽하우스를 짓는 일이 허가 때문에 늦어졌는데,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허가를 빨리 내달라고 시위를 할 정도였으니, 박 대표의 노력이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양양에서 찾은 행복, 새로운 삶에 눈 뜨다.

박 대표는 요즘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바닷가를 달린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으며, 이것만으로도 양양에 살고 있는 삶의 만족도가 크다고 해맑게 웃는다.

“저도 처음엔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아등바등했었죠. 허가받을 일도 태산이고, 민원문제로 불안한 일도 있고, 사업하면서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죠. 이런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하면 이겨낼 수 있다’ 였어요. 대단한 꿈과 욕심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죠.”

양양에서 살면서 얻은 행복이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했다. 이제 큰 욕심은 없다. 양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게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일자리도 늘려야 하는데, 실제로 지난해 처음으로 현북면 인구가 늘었다고 자랑이다. 동해안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치 계획을 세워 놔다.

“내년부터는 현재 전 세계 가장 핫한 바다 아이템인 요가스튜디오와 건강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을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엔 서피비치가 CNN이 선정하는 세계10대 해변에 이름을 올리는 게 목표인데... (하하하) 꿈이 너무 큰가요?”

갑자기 급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멋쩍게 웃는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불가능하게 여겼던 걸 다 해내지 않았다. 그 어려운 걸 박준규 대표가 또 해내리라고 본다.

〈글·사진 편집부〉



서피비치(SURFY BEACH)

서프비치와 양양의 만남.
서핑 전용해변을 서프비치라고 하는데
양양의 영어 이니셜 'YY'를 서프와 비치 사이에
넣어서 만든 서피비치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현남면 두창시변리

조용한 마을에서 서핑메카로 급부상
정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과 화해, 공존의 이야기
모두가 더불어 번창하는 마을 만들기

'이름'의 힘은 강하다. 우리는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길 꿈꾼다. 두리(斗理), 창리(昌里), 시변리(市邊里)로 불리던 세 마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두창시변리'라는 이름을 얻은 마을은 '두루 번창하는 시원한 해변 마을'이라고도 불린다. 그 이름 덕분일까? 두창시변리 주민들은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화합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삶을 꿈꾼다.

바닷가 옆 작은 마을, 서핑 메카가 되다



양양군 현남면에 소재한 두창시변리는 인구수가 유난히 적었던 세 마을—두리, 창리, 시변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죽도 해변에 인접해 있는 이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름철 해수욕장과 야영장 운영을 통해 마을 수익을 창출해 왔다. 1970~80년대만 해도 죽도 해변은 여름 피서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수심이 얇고 백사장의 모래도 고와서 주로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찾아왔다. 자가용이 흔치 않던 시절이라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찾아왔고, 큰 관광회사에서 운영하는 서울-양양 간 고속버스 매표소도 있었다. 양양 토박이로 두창시변리에서 나고 자란 김조광 노인회장(77세)은 아직도 죽도해변의 전성기를 기억하고 있다.

“40년 전만 해도 죽도해변은 낙산해변, 하조대해변과 함께 여름 피서지로 유명했습니다. 강릉에서도 놀러 올 정도였으니까요. 당시에는 교통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해수욕장을 찾으면 며칠씩 묵어가곤 했습니다. 그때는 민박을 비롯한 상권이 참 좋았죠.”

세월이 흐르면서 전국적으로 교통과 관광 인프라가 발달하자 이곳에 몰리던 인파는 다른 곳으로 자연스럽게 흩어졌다. 그렇게 죽도해변은 번잡한 관광지를 피해 호젓하게 바다를 즐기려는 사람들만이 찾아오는 조용한 해변이 되었다. 하지만 6~7년 전부터 죽도해변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양양이 서핑 명소로 급부상하면서부터다. 넓고 허름한 시골집 대신 카페, 서핑숍, 게스트하우스 등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둘 정착했다. 요즘 두창시변리는 서로 다른 물결이 만나 출렁이는 변화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



갈등을 넘어 화해로, 거리를 좁히다

현재 두창시변리에는 93세대 15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노년층이 40퍼센트 정도 차지한다. 최근에는 서핑 열풍 때문에 청년층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마을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생겼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나이 지긋한 동네 어르신들은 자유분방한 서핑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이맛살을 찌푸렸고, 젊은이들은 그런 어르신들에게 거리를 두었다. 같은 터전에서 살고 있지만 정주민과 이주민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고, 그만큼 갈등의 골은 깊었다. 전동한 이장(70세)은 마을 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서핑으로 인해 마을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양양지역이 서핑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니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도 이제 적응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자리도 자주 마련하고 있어요. 면민 체육대회나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지원제 등 마을의 대소사 행사에 서퍼들을 초대해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지난해에는 단합대회 삼아 다 같이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두창시변리는 양양군에서도 정주민과 이주민 간 단합이 제일 잘되는 마을로 통한다. 생활 방식이나 정서적·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해 서로 노력한 덕분이다. 마을 이장의 얼굴도 모르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돕는다. 전동한 이장 역시 생활의 불편함은 없는지 이주민들을 세심하게 챙긴다.

두창시변리에서는 이주 후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 정주민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는 마을의 일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마을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전동한 이장과 김조광 노인회장은 이곳에 터를 잡은 젊은이들이 향후 마을을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

죽도해변은 수심이 얕고 파도가 적당해 서핑 입문자뿐만 아니라 중·상급자 모두 만족할만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서핑으로 유명해진 핫플레이스지만, 두창시변리 주민들에게는 오랫동안 일구어 온 소중한 주거지이다. 그래서 관광권과 생활권을 동시에 보유한 마을로서 균형이 필요하다. 정주민과 이주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는 것이 전동한 이장의 생각이다.



“4년 전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마을에서 야영장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혹 야영장이 아닌 곳에 텐트를 설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미관을 해칠뿐더러 쓰레기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야영장을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어요. 또한 해수욕장 개장 시즌에는 서퍼 전용 구역과 일반 피서객 구역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서라도 이용규칙을 꼭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공존을 위해서는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 삶의 터전을 양보한 주민들의 배려, 다 함께 공유하는 공간에 대한 예의,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두창시변리의 아름다운 공존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4년째 마을 일을 맡고 있는 전동한 이장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과업이 있다고 한다. 바로 마을회관을 새로 짓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 소득의 대부분을 빠짐없이 저축하고 있다. 지금의 마을회관이 꽤 노후 된 데다 군 소유이기 때문에 마을 소유의 번듯한 자산을 마련하고 싶다는 마음에서다. 그 공간에서 신구세대가 친목을 다지고, 정주민과 이주민이 소통하며 공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두루 번창하는 시원한 해변마을의 미래는 창창할 것이다.



들에서 못밥 먹던 날이 꼭 이 맘 때 일겁니다 만석을 꿈꾸던 양양 농꾼들의 밥! ‘젯놀이’

조선 정조 임금 때에, 일곱 명의 농꾼들이 들판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밥심’으로 일을 한다는 세간의 속설이 정설로 여겨지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밥사발은 바닥이나 무릎에 걸쳐놓고 먹어야 할 만큼 다들 컸다. 얼굴보다 큰 국 대접도 어찌나 크던지 두 손으로 받쳐 들 정도이고, 아직 떠꺼머리를 하고 있는 총각은 족히 서너 말은 들었을 가죽 술동이를 붙들고 마시고 싶은지 넋지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먼저 막걸리 한 잔을 건네받은 농꾼은 이미 시원하게 목을 축이고 있었다. 농꾼들 한쪽 끝에 돌아앉아 옷섶을 풀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던 아낙의 아들에 밥사발도 한 손으로 들지 못할 만큼 커서 무릎에 걸쳐 놓고 밥을 먹고 있었다. 육체적 노농의 가치로만 농사를 짓던 농꾼들이 들판에서 점심을 먹던 당시의 풍경을 기록한 단원 김홍도의 ‘새참’이라는 270년여 년 전의 그림 속 이야기이다.



우리 음식문화 역사에서 일꾼들 위한 최고의 접객음식

이 후로도 한참 동안, 일꾼들은 모내기 때와 추수철이면 논둑이나 길옆에서 '새참'을 먹었다. 농사일에 밝은 황두꾼의 선창에 따라 논바닥까지 잔뜩 굽힌 허리의 손끝으로 못줄에 맞춰 '손모'를 심던 날, 한산도 담배 한두 갑에 빵과 막걸리까지 덤삼으로 나오며 '밥심'으로 농사를 짓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새참'을 먹었다. 그리고 꼭 요맘때이다. 그날 논두렁에서 점심으로 먹었던 '새참'을 양양을 비롯하여 영동북부 사람들은 '젯놀이'라고 하였다. '요리'를 뜻하는 평안북도 사투리 '노리'와 젯길이나 고갯길을 뜻하는 강원도 사투리 '젯길'에서 합성되어 불리게 된 '젯놀이'는 말 그대로 '고개(젯) 너머 먹는 음식'이라는 뜻이다. 오랜 농경문화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왔던 '젯놀이'는 농경 구전음식으로 일꾼들을 극대접 하던 최고의 성찬 盛饌이었다. 우리 음식문화역사에서 일꾼들 위한 접객음식 중에서 '젯놀이'만큼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맛과 다양성, 풍부성을 갖췄던 밥상은 없었다. 단순히 한 끼 식사로 먹던 일상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평소 소탈하던 일꾼들의 입맛도 갑자기 까탈스러워 질 때가 이때로, 논주인은 혹시나 일꾼들에게 흠이라도 잡힐세라 국거리, 반찬거리에 잔뜩 신경을 쓰며 푸짐하게 준비하느라 정성을 다했다. 그래야 '그 집 잘 차려 내왔더라'란 소리에 풍년을 기원하며 모를 꼭꼭 눌러 심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축원발복의 의미와 양양 젯놀이의 고유한 별미



이처럼 '젯놀이'는 풍년을 기원하고, 그 집안의 음식솜씨도 선보이는 날이기도 하면서, 이웃들과도 음식을 나누던 '축원발복(祝願發福)'의 농경음식이었다. 양양 '젯놀이' 음식 또한 해안지역의 음식문화 영향이 지배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았던 별미음식이 몇 가지 있었다. 특히 백설당을 허영게 뿌린 '쇠미역 튀각'은 별미 중의 별미로 쳤다. 바삭하게 말린 쇠미역을 또 바삭하게 튀겨내 백설당을 잔뜩 뿌리면, 달고 짭짤한 맛을 뜻하는 요즘말로 '단짠단짠' 하여서 밥반찬도 되고, 막걸리 안주도 되고, 별미 별식도 되고, 간식까지 제격이라 절대 빠뜨리지 않았던 양양 '젯놀이'의 고유하고 독특한 반찬거리였다. 국으로는 팔뚝만 하게 큼직한 이면수를 해안지역 사람들은 '밤공이 새치'라고 하였는데, 고추장을 푼 장국 물에 파와 무를 송덩송덩 써져 놓고 일큰하게 끓여 나가기도 했다. 며칠 전에 떠다가 파, 마늘, 고춧가루에 버무려 간간하게 삭혀두었던 '부새우 젯'도 그때의 별미였고, 칼칼하게 부친 장떡 몇 소적도 빠질 수 없었던 양양 젯놀이 음식문화의 특징이었다.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함지박에 팔밥을 담고 일꾼들에게 먹일 젯놀이 찬품을 내 가는 농두엽부 龍頭鰯의 발걸음을 재촉하던 모심기는 아직 절반이 남아어도 다들 잘 차린 '젯놀이'에 270년여 년 전의 농꾼들의 입맛이 아니었을까. 문득 양양의 전통농경 풍습 음식이었던 '젯놀이'에 대한 회상이 더욱 그리운 것은 음식과 음식문화에 대한 아쉬움보다, 더불어 함께 '축원발복(祝願發福)'해주며 공유하던 노동의 가치가 더욱 필요할 요즘이기 때문일 것이다.

〈글·사진: 강원도 외식자널대표 황영철〉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통과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4.17일 열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인근 시·군과 비슷한 해안 자원을 갖추었음에도 이 지역은 공원에 묶여 건축물, 숙박시설, 음식점, 상가 등 대부분의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행위로 불가능한 실정이라서 영세자영업자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향후 전략적인 대응 논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함께 난개발 방지 및 해안자연환경 순응형 계획으로 자연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민안전의 든든한 울타리 '군민안전보험' 도입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로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폭발·화재·붕괴·익사사고 사망과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



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해 또는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되고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송이조각공원 파크골프장, 4월 '첫삽'

송이조각공원 내에 기존 파크골프장이 위치해있던 송암리 540-1번지 일원 22,000㎡에 파크골프장 18홀 규모 조성사업을 4월 착공에 들어가 6월중 준공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 부지가 양양 남대천 하천 기본계획(변경)에 포함되어 있는 친수구역으로 자연친화적 주민이용시설 조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역임을 고려해 실시설계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보전하면서 하천기본(변경)계획에 부합하도록 추진 중이며, 향후 정식 파크골프장으로 관리해갈 계획이다.



충용8군단 지역 농가 돕기, 「낙산배 팔아주기 운동」 전개

충용8군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양양지역의 특산물인 '낙산배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했다. 4. 9일 양양군으로부터 일본 수출을 위해 저장·보관중이던 낙산배 300박스가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4. 10일부터 군 내부망을 통해 낙산배 구매를 홍보했고, 평일 기준 이틀만인 4. 13일 300박스 전량을 접수함은 물론 465박스에 달하는 추가구매 의사까지 합해 총 765박스를 구매하여 어려운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 극복위해 플라이 강원 지원 나서

플라이강원에서 항공 회원권 개념의 프로모션으로 내놓은 국내·국제 전 노선을 패키지 성격에 따라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인피니티켓' 상품 판매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탑승기간은 국내선의 경우 구매 후 12월 말(2020년 12월 31일)까지, 국제선은 첫 탑승일로부터 6개월간(2021년말 한도)이다. 지역 내 기업의 위기가 또한 양양군의 위기라는 인식 아래 김진하 양양군수를 비롯해, 군청 5급 이상 실과단소장도 상품 구입에 적극 동참했으며, 각 부서에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엄두릅, 양양산채 특화작목으로 육성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엄두릅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품질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엄두릅 재배기술 향상을 통한 전문단지를 조성해 지역특화 작목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양양 지역에서 생산된 엄두릅은 설악산과 점봉산, 오대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주변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어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 산채작물인 엄두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양양에서 자생하고 있는 엄두릅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려 적정규모 이상으로 규모화·단지화함으로써 지역 대표 신소득작목으로 적극 육성한다.

양양군, 미세먼지 없는 청정지역 선정

양양군이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적은 청정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서 측정된 지난해 양양군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15.3\mu\text{g}/\text{m}^3$ 으로 전국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283곳 중 최상위권으로 미세먼지가 없는 살기 좋은 도시로 부각되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운영한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인 $23.08\mu\text{g}/\text{m}^3$ 보다 33.7% 낮은 수치이다.

또한 양양군은 청정공기의 대기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양양군이 자랑하는 관광명소인 낙산사에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을 설치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청정공간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양군의 미세먼지 정책은 많은 지자체로부터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시장상인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자 전통시장 내 미세먼지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시 신속한 대응(마스크착용 및 야외활동 자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낙산해수욕장을 아름다운 해안경관림 지역으로 조성



낙산해수욕장의 해안경관림은 대부분 해송으로써 나무의 활력은 양호한 편이나, 기존에 전정 작업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생장이 중단되었거나 가지가 기형적으로 자라면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고, 일부 도로와 연결된 해송은 가지가 길게 뻗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낙산해수욕장 일원의 해안 경관림 가꾸기 사업을 통해 해송 402본에 대한 전정 작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을 통해 관광객이 많이 찾고, 최고의 피서지로 각광받는 낙산 해수욕장을 한층 더 아름답고 수려한 해안숲으로 가꾸며, 도로에 연결된 구간의 나무 중에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나뭇가지를 정리해 원활한 차량 통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



5



2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첫 모내기
2. '희망을 띄우다' 플라이강원 탑승권 구매 운동
3. 착한마스크 나눔_ 한국전력공사 양양지사, 양양자원봉사센터에
농·특산물 전달
4. 코로나19 물러가라~ 화사한 남대천 벚꽃
5. 미세먼지 없는 청정양양! 전국 최상위 지역 선정
6. 양양전통시장 방역 실시



3



4



6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3층 원룸 화재...

불길 속, 이웃주민 구한 이주노동자 알리 씨를 만나다.



“사람을 살리고 싶었어요. 금방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거기서 연기 먹으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힘들어요.”

서툰 한국어로 그때의 상황을 말하는 하얀 얼굴에서 그의 고운 심성이 그대로 전해진다.

양양읍 구교리 3층 원룸 건물, 불길 속에 뛰어들어 10여명의 주민을 구조한 알리(28)씨는 카자흐스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이다.

화재가 발생한건 지난 3월 23일 밤 11시 22분쯤이었다.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알리 씨는 자신이 사는 원룸 주택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매캐한 연기 속 “불이야”를 외치며 문을 두드려 입주민 10여명을 대피시켜 생명을 구했다.

또한 2층 방문이 열리지 않자 건물 외벽 가스배관과 TV유선 줄을 잡고 2층 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여성을 구조하려던 그는 거센 불길에 목과 손, 귀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이처럼 이웃을 구한 의인이지만, 화상치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그에게는 안타깝게도 불법체류자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2017년 12월, 카자흐스탄에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알리 씨는 양양에서 막노동 일을 하며 지내왔다. 그에게는 부인과 아이들을 포함해 부양해야 할 식구 8명이 있다. 그는 양양에서 일하며 번 돈을 카자흐스탄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로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알리 씨를 서울의





손양초 장선옥 교감선생님과 함께

LG의인상 시상식

한 화상전문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건 이웃주민인 손양초 장선옥 교감이다. 장선옥 교감은 손양초 교사들과 이웃, 지인들과 함께 십시일반 모은 돈을 치료비에 보탬고, 또 강원도 민원신문고에 알리씨를 의상자로 선정해 달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리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이처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에도 고귀한 희생정신을 발휘해 화재 속 양양군민을 구한 알리씨의 딱한 사정이 전해지자 속초경찰서는 양양군과 함께 알리씨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속초경찰서는 LG복지재단에 '의인상 추천서'를 보냈고, LG복지재단은 4. 22일 알리씨에게 'LG의인상'을 수여했다. 이 상은 타인을 위해 살신성인한 의로운 일반인을 사회의 귀감으로 삼고, 널리 알리기 위한 상으로,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고 다칠 수도 있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한 알리씨 덕에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의인상 수여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알리씨는 한국에 너무 감사하다며 "한국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 가족들 모두 꼭 데리고 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알리씨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구할거냐'는 물음에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한다. 알리씨는 주변에서 '네가 죽을 수도 있으니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난 또 구할거다'라며 어김없는 의인을 모습을 보였다. 이런 그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장선옥 교감은 한국에서의 알리씨의 치료기간을 연장시키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알리씨의 치료를 위해 법적 신분을 불법체류자에서 '기타자격'으로 바뀌었다. 이에 알리씨는 화상치료를 다 마칠 때 까지 6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양양군은 희망나눔운동 지원 사업을 통해 긴급 생계비와 치료비 지원에 나섰고, 보건복지부에 알리씨의 의사상자 선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알리씨에게 영주권을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알리씨가 영주권을 받아 우리나라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알리씨가 화상치료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 치료도 부디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길 기원한다. 아울러 양양이 자신의 고향과 닮아서 너무 좋고, 이런 한국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카자흐스탄 외국인 노동자 '알리'씨의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응원한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개 안건 심의·의결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단법인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4월 23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우섭, 간사 김택철)에서는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오는 4월 28일 개의되는 제2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고제철 양양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심사를 약속하며, 집행부에서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속 집행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원 간담회 개최

양양군의회, 코로나19 극복 위해 의정비 반납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지난 6일 간담회를 열고 해외연수 등 공무국의연수비 예산 460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군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코로나19관련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뒤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군민들을 위해 예산을 반납하는 데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반납된 예산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시킨 뒤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고제철 의장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군

민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이같은 결정을 했으며 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

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검토



양양군의회(의장 고계철)는 지난 4월 6일 군 복지과와 코로나19 관련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계획을 청취했다.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및 긴급 생활안정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과는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전 국도비 27억원의 사전사용 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1,500가구를 대상으로 상품권을 차등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총 8억 원 지원하고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4,885세대에 세대당 4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코로나19확산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서민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향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기존에 지원받는 부분이 아닌 소상공인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취약계층 가구 생활지원을 통해 군민의 생활안정은 물론 소비여력을 높여 지역경제 소비 촉진 도모까지 가능하게 되었다며, 생활지원비의 빠른 소비로 지역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양양읍성



양양읍성 북문

양양읍성은 양양읍 군행리 현산공원 입구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산(峴山)의 맥(脈)을 따라 성황사(城隍祠)에서 현 양양읍성 터널을 가로질러 성내리 쪽의 경사면 구릉(丘陵)지대를 따라 완만하게 돌아 양양감리교회와 양양천주교회를 지나 양양초등학교 앞의 4거리에서 양양군청에 이르는 성을 말한다.

현재 양양읍성은 고려시대부터 양주성으로 불리다가 양양읍성으로 칭하였는데 그 역사는 약 천 년이 넘는 시점으로 올라가는데 이는 우리나라 중동부 변방의 방어기지로 북호남왜(北胡南倭)의 술한 외침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1451년에 편찬한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제7대 목종10년(1007)에 양주성을 처음으로 축성하였으며, 우왕 11년(1385) 허주(許周)가 지양주사(知襄州事:고려시대 지방관직)로 있으면서 읍성을 다시 축조하였다는 내용이 『세종실록』에서 전하고 있으며, 조선 제3대 태종13년(1413)에 도호부를 두면서 동헌(東軒)을 중심으로 동·서·남·북문을 설치하고 석성(石城)을 길이 403尺, 높이 5尺의 규모로 쌓고 토성(土城)의 길이 2825尺(약856m)을로 쌓았으며 성안에는 2개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문종실록』에 기록되어있다.



양양읍성 관아 건물명이 표기되어있는 관동읍지, 양양읍지도(1868~1871)



양양읍성 성곽이 그려져 있는 해동지도(1750년대초)



양양읍성 실측현황도(강원문화재연구소)



양양읍성 서벽 석축

이후 양양읍성은 시대에 따라 석축성과 토축성을 보수하는 등 여러 차례의 보수와 증축이 있었음을 많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어 그 시기가 고려 초반으로 올라갈 정도로 역사적이고도 희귀성을 지닌 읍성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양양읍성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고려 제23대 고종8년(1221) 거란(契丹)의 침략을 잘 방어한 공으로 양주(襄州)로 승격되어 방어사(防禦使)가 임명되었다가 고종40년(1253) 몽고의 침략으로 양주성이 함락된 후 고종44년(1257) 몽고군에게 항복하여 덕령감무(德寧監務)로 강등되었다가 제24대 원종원년(1260)에 다시 양주로 회복되었다라고 『고려사』에서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는 태조6년(1397) 부(府)로 승격되었으며 제3대 태종13년(1413)에 도호부(都護府)가 되었고 태종16년(1416)에 비로소 양양(襄陽)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양양지역은 예로부터 지리적으로 보아 영동과 영서의 길목에서 위치하여 많은 변화와 전란을 겪게 되자 읍성의 중요성에 비추어 양주성을 구축하고 매년 성향제(城隍祭)를 올려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였던 것이다.

성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나무나 돌 또는 흙으로 높이 쌓은 큰 담을 의미하며, 외성(外城)과 내성(內城)을 모두 일컬어 성곽(城郭)이라 칭한다. 영동지역의 성곽은 산성과 평산성이 주류를 이루는데 양양군내에 산재된 성곽이 여기에 속한다.

현재 양양읍성과 관련된 성벽, 건물지, 우물 등은 거의 폐허가 된 상태이고, 현산공원 진입로에서부터 이어지는 양양읍성 남벽과 현산공원의 서벽 쪽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석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북벽과 동벽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도로와 주택 등이 들어서 성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데, 당시 성안의 백성들과 관원들이 사용하였던 군행리와 성내리의 매몰된 우물지는 지금이라도 표지석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지도서(輿地圖書)』, 『관동지(關東誌)』, 『관동읍지(關東邑誌)』에 의하면 양양읍성 내에는 객사(客舍) 35칸, 아사(衙舍) 108칸, 향청(鄉廳) 10칸, 훈련청(訓練廳) 14칸, 군기청(軍器廳) 10칸 등의 관아(官衙)건물이 상세히 표기되어있으며, 관동읍지 양양읍지도(襄陽邑地圖)에도 아사(衙舍), 작청(作廳), 사령청(使令廳), 군청(軍廳), 형리청(刑吏廳), 창(倉), 관노청



우물지(군행리 입구 마을회관 앞)



우물지(성내리 종합복지회관 앞)

(官奴廳), 태평루(太平樓), 동문, 남문이 그려져 있으며 서문의 기록이 확인된다.

따라서 양양읍성은 지양주사 허주에 의하여 축성되었다가 몽고군이 침입한 1253년에는 읍성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문종실록』에 의하면 1451년 읍성이 보수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1530년에 반 정도가 퇴락하였다고 한 『신증동국여지승람』 내용으로 비추어보아 양양읍성은 이 시기에 폐성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동읍지』 양양읍지도(1868~1871)에 동문[한수루: 현 양양초등학교 앞 교차로]과 남문[현산정: 현 양양지구대 앞 도로], 그리고 서문의 문루(門樓)가 표기되어 있음을 미루어볼 때 양양읍성은 폐성이 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퇴락이 있었을 뿐 읍성으로서의 기능은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 동문(한수루: 漢水樓)과 남문(현산정: 峴山亭)은 숙종26년(1700) 양양부사 남치훈(南致薰)이 창건하였고, 남문인 현산정은 영조24년(1748) 양양부사 박필정(朴弼正)이 다시 창건 하였다. 『峴山誌』

〈글·사진 문화원〉

이달의 책이야기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이기주, 황소복스(2020)



“사랑은 내 시간을 상대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총 132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눈과 귀로 채집한 글감을 가슴으로 들여다보며 써내려가는 이기주 작가 특유의 관찰력과 섬세한 문장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사랑과 인생을 소재로 한 글과 문장들이 빛을 발한다. 남녀 간의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으로 확대되는 범우주적인 사랑에 대한 단상과 인생에 대한 통찰력 있는 문장들은 보는 이의 고개를 숙연하게 만든다.

진정한 사랑이란 내가 가진 소중한 시간을 상대에게 망설임 없이 건네주는 것이다. 란 메시지를 전달한다.

◆ 책 속 한 구절 ◆

우리는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특히 사랑은, 내 시간을 상대에게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내 일상에 침입해 시간을 훔쳐 달아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이라는 감정과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공유하는 관계」중에서

사랑은 때로 가장 강력한 삶의 동력이 된다. 사랑에서 돌아난 힘으로 우린 세월을 살아낸다. 사랑 덕분에 힘겨운 순간에도 속절없이 무너지 내리지 않는다.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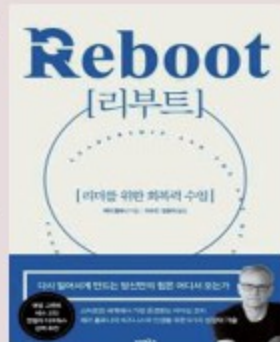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중에서

바다 해(海)에는 어미 모(母)가 스며있다. 어머니는 바다를 닮았다. 자식이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의 마음은 깊고도 따듯하다. 그 품에 안기면 어른도 아이가 된다. 어머니의 사랑은 맹목적이다. 자신의 삶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매번 자식을 보듬는다.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고 역장이 무너지더라도 어머니는 끝내 자식을 용서한다. 제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어둠을 찢고 빛을 향해 나아간다. —「어머니의 사랑」중에서

양양교육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리부트-리더를 위한 회복력 수업

제리 콜로나, 어크로스(2002)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리더들이 앞다투어 찾는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 그것이 바로 '리부트(Reboot)'다.

훌륭한 스포츠 코치가 엘리트 운동선수의 기량을 예리하게 다듬어내듯, 리부트를 이끄는 저자는 우리들로 하여금 리더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리드한다.

이 책에서는 저자의 경험과 수많은 CEO들의 사례들을 소개하며, 특히 저자는 9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약점을 딛고 자신만의 강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금 올바른 길 위에서 있는지, 가장 집중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대담히 맞서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면 성장 독서'로 추천한다.

걱정 세탁소

홍민정, 좋은책어린이(2020)



‘걱정’이라는 말의 뜻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운다.’이다.

어떤 일에 대해 속을 태우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속을 태우면서 그 일을 더 잘하게 된다면 보람과 기쁨은 두 배가 되기도 한다.

이 책은 ‘걱정’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하는 우리의 이야기다. 걱정꾸러기 재은이를 통해 걱정 없이 지내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끔은 걱정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해준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뼘 더 자라는 재은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길 바란다.

글·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04/29 <기생충 흑백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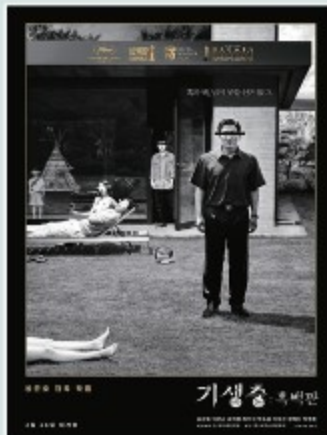
<트롤 : 월드 투어>

04/30 <저 산 너머>

05/01 <파왕별희 : 디 오리지널>

05/21 <침입자>, <나는 보리>

05/27 <언더 워터>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심미아파트	1명	아파트청소원	09:00~15:30 (토)12:30까지	월149만원
파머스카친	3명	주방보조원	10:00~20:00 (시간협의)	월200만원이상
(유양양자활 환경지원센터	1명	재활용품리선별원 (수동운전가능자)	09:00~18:00 (주5일)	월179만원 (식대별도)
스위트호텔	1명	객실청소원	08:30~17:30 (월6회휴무)	월200만원
양원아민씨 주식회사	1명	정보처리기사	09:00~18:00 (주5일)	월179만원이상 (협의)
주식회사 윤진 (홈마트)	1명	매장관리 및 배송업무	10:00~19:30 (주6일)	월265만원
낙산노인복지센터	1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09:00~18:00 (주5일)	월186만원이상
매대중영엔에프	1명	품질관리원	09:00~18:00 (주5일)	월190만원이상
일조창호	3명	응접원 청소설치원	08:00~18:00 (주6일)	월200만원이상
광운통신(주)	2명	통신인터넷케이블 설치수리원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

강원도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에게
50만원 × 5개월
최대 (250)만원 지원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이란?

도내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용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모집 시작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여성
- 구직등록기관(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여성(신규등록 포함)
- 만 35~54세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미혼, 무경력자 포함)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2020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액	2,636,000	4,488,000	5,806,000	7,124,000	8,442,000	9,760,000
차등	88,344	150,025	195,200	237,652	286,647	326,56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63,778	147,928	203,127	254,909	300,952	349,099
총합	-	151,927	198,402	242,715	298,124	343,406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그외·납부 할산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문의 : 복지과 여성가족(☎033-670-2357)

*상영(예정)작은 영화배급이나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yangyang@scinema.org ☎033-673-7050

5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 2020. 5. 1.(금) ~ 2020. 6. 1.(월)

* 모두채움신고서 발송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시 인정

· **납부기한** : 2020. 8. 31.(월)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스마트폰 앱)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가능

– 방문신고

→ 전국세무서 및 양양군청 2020. 5. 1.(금) ~ 2020. 6. 1.(월)

→ 양양군청 · 속초세무서 합동 접수처 운영

· 기간 : 2020. 5. 18.(월) ~ 2020. 5. 22.(금)

· 장소 : 양양군청 대회의실(3층)

· **문의처**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 1661-1000, 110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 033-670-2297

문화 ·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이용 안내

· **구축 목적** : 시설을 방문하지 않아도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군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예약서비스 제공

· **대상** :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 **예약신청 방법** : 양양군청 홈페이지 → 빠른메뉴 서비스 → 문화 · 체육시설 예약

· **예약가능시설**

– 문화시설 : 공연장, 소강당, 전시실, 동아리방(현산방, 송이방, 연어방), 일출웨딩홀

– 체육시설 : 사이클경기장, 국민체육센터, BMX경기장, 테니스장, 풋살장, 공항구장

· **문의**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033-670-2794)

2020년 새롭게 개편된 공익형 직불제

개편 전		개편 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공익 직불 제	선택 직불제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논활용(논이모작)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기본 직불제	면적직불금 (역진적 단가)
쌀소득보전직불 : 고정, 변동			소농직불금(징액)
밭농업직불 : 고정, 논이모작			

· **신청조건**

1.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받은 농지

2. '16~'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받은 농업인

* 단, 신규농업인은 신청 직전 3년 중 1년이상 0.1ha이상 경작해야하며, 소농직불금은 아래 소농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신청면적이 0.5ha 이하

② 농업인, 비농업인 포함 소유농지 면적의 합이 1.55ha 이하

③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이 신청 직전까지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함

④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이 신청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

⑤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 농업 외 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전체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 축산소득 5,600만원미만,

시설재배업소득 3,800만원 미만

· **신청일시** : 2020년 5월 1일(금) ~ 6월 30일(화)

* 코로나로 인한 연기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신청장소** : 각 읍 · 면사무소(농지소재지)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또는 각 읍 · 면사무소

☎ 양양읍 : 033-670-2316 / 강현면 : 033-670-2417

현북면 : 033-670-2647 / 서 면 : 033-670-2626 /

손암면 : 033-670-2372 / 현남면 : 033-670-2401



실시간 기상 날씨알리미 앱

- 내가 있는 위치에 기반한 위험 기상정보를 실시간 제공
 - ☞ 호우, 대설, 황사, 태풍, 지진, 화재, 해빙지역의 사용자
 - ☞ 500~4500m 이상: 모든 사용자
 - ☞ 500~3500m: 1500 이상: 지진발생시 50~50km 이내 사용자
- 내 맘대로 다양하게 앱 활용 가능
 - 알림 등록 추가
 - 원하는 대로 설정
 - 바다예보
 - 폭보 (강풍, 폭설, 강수, 강풍, 폭설)
 - 날씨예보
 - 원하는 지역 설정
 - 알림사각 설정

☞ 더 빠르고 안전하게 내가 있는 위치의 위험 기상 정보(호우, 대설, 지진, 태풍 등)를 스마트폰 실시간 알림으로 제공되며
복잡한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소셜네트워크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앱 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날씨알리미' 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꾸러미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아시나요?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양양군에 30개 여성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비영리 조직으로 양양군에 4개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은 모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약자를 배려하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관내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적극 응원해 주세요.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주요 생산품목
(주)행복에스지건설	033-672-8911	시설물유지관리공사
강소농GAP플래그작목반	033-672-2975	들기름, 들깨가루
주식회사 명산	070-4410-3539	임업서비스
와이에스(YS)케어	033-671-1241	천연화장품
유한킴벌리 특판속초대리점	033-635-8922	화장실용 화장지
맘미미아	033-672-2350	시료
주식회사하나설비	033-672-9334	건축공사
태창건설(합)	033-672-5425	철근콘크리트공사
ok시스템	-	행사용품 임대 및 설치
강원공구	033-672-6915	체인 톱기계
두성건설(주)	033-672-1506	토목공사
빈스페이스	033-646-7555	조형물
현산광고	033-671-1221	간판, 현수막 외
정우건설합자회사	033-672-6767	철근콘크리트공사
정소명창	033-673-4009	건물청소서비스
만석건설	010-6377-1290	인테리어, 건물 관리(하차 보수 등)
(주)금영건설	033-671-4335	건축물조립공사
주식회사 제아이씨	033-673-1155	건물청소서비스
송천팜농업회사법인(주)	033-672-1233	장아찌 젓갈 외
강원삼승판넬	033-672-6161	코너앵글
(주)신흥토건	033-672-8200	건설용가무집
양양광고사	033-671-2936	명함인쇄기
(주)해송KNS	033-672-5850	채소류
주식회사 대건철강	033-672-5789	금속제품 도매
(주)일양	033-672-1720	아스팔트콘크리트
라인광고	033-671-8822	간판현수막 제작
우리건설(주)	033-673-4111	철근콘크리트공사
강원ComNet(강원컴넷)	033-673-3211	컴퓨터 유지보수
(주)부광건설	033-671-1460	타일및석공사
세기광고	033-671-8440	간판
(유)늘푸른환경	033-673-4844	청소용역
(유)양양자활환경자원센터	033-671-2788	재활용품선별판매
따뜻한밤상 영농조합법인	033-673-3515	유기농농산물
서프시티협동조합	010-5788-1824	서핑교육

2020 기상청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

모집기간 2020년 4월 3일(수) ~ 2020년 5월 15일(금)
접수기간 2020년 4월 22일(수) ~ 2020년 5월 15일(금)
접수분야 스토리 분야 / 미디어 분야 / 디자인 분야
 ※ 분야 내용 및 국·외용 전제로 함
평가일 2020년 5월 21일(금)
심사기준 적합성, 창의성, 완성성
 ※ 단계를 심사할 경우 1차 심사(창의성, 2차 심사(완성도 평가))
문의처 양양사무국 : 070-4921-5444
 지원한 18살은 홈페이지(hiwww.declat-solution.co.kr) 참조

참가자격 전국한글구나 (대한민국 18, 19세 이하)

구분	종목	단위별	당첨
대상	환경부 장관상	3	100만원
최우수상	기상청장상	3	30만원
우수상	기상청장상	3	20만원
장려상	기상청장상	6	10만원

총 12명(명), 2020년

기상청, 양양군, 양양소방서, 양양농업기술센터, 양양문화재단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이 개정된 것 아시나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8.14.]

개정사항1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개정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로 제출기간 단축

개정사항2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스프링클러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아파트 연면적 5000㎡ 이상, 11층 이상 해당
 개정
 연면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모두 종합정밀점검 대상

자체점검의 구분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의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	----------------	----------------	--------------------

대상자 통합 조회 방법



조회 기간 2020. 5. 4. (월) 09:00 ~

조회 방법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대주만 가능) ➡ 조회

지원금 신청 방법

01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02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시행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 토·일 방문접수 불가)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16.부터 '요일제' 제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으로 받고 싶다면? 신청기간 ▶ 온라인 5.11.(월)~, 오프라인 5.18.(월)~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① 로그인 ➡ ② 신청 ➡ ③ 지급(충전)



오프라인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① 은행방문 ➡ ② 신청 ➡ ③ 지급(충전)



상품권, 선불카드도 받고 싶다면? 신청기간 ▶ 5.18.(월)~



온라인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① 지자체별 홈페이지 ➡ ② 신청 ➡ ③ 지정장소 방문 ➡ ④ 지급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① 읍면동 방문 ➡ ② 신청 ➡ ③ 지급

※ 구체적 신청일정 등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신청기간 ▶ 5.18.(월)~

고령,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 분들은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① 전화상담, 확인 ➡ ② 조회 ➡ ③ 방문, 접수 ➡ ④ 지급(상품권/선불카드)

기타
안내 사항

■ 이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5.4.(월)~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 ② 증빙서류 제출 ➡ ③ 검토 후 의견 통보 ➡ ④ 지원금 신청

※ 구체적 이의신청 일정 등은 지자체별 일부 변동 가능

■ 지원금 사용 안내

· 2020.8.31.까지 사용
·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
· 잔액은 환급 불가